

## 인천일보

2015년 03월 12일 (목)  
03(경기판)면 종합

###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합동점검

경기도는 올 3월부터 시·군 및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걷기 코스인 평화누리길 12개 코스를 대상으로 매월 2회(둘째, 넷째 목요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오는 12일부터 연천지역 '통일이음길(군남홍수조절지~신탄진역까지 24

km))' 구간을 시작으로 본격 점검활동에 돌입한다.

이번에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안내판 및 편의시설 설치현황, 평화누리길 이용객 불편사항, 현재 노선의 적정성 및 대체노선 발굴 등으로 합동점검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 자전거 퍼레이

드, 걷기 행사, 마라톤 대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 명품 걷기코스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최봉순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상징인 DMZ를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통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17.5 X 4.8 cm

## 기호일보

2015년 03월 12일 (목)  
02A면 종합

### 경기도 오늘부터 평화누리길 활성화 합동점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대표 걷기 코스인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도는 이번달부터 시·군 및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평화누리길 12개

코스를 매월 2회(둘째·넷째 주 목요일) 합동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우선 12일부터 연천지역 '통일이음길(군남홍수조절지~신탄진

역)' 구간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안내판 및 편의시설 설치 현황 ▶평화누리길 이용객 불편사항 ▶현재 노선의 적정성 및 대체노선 발굴 등이다.

도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지속적으

로 실시한다.

아울러 자전거 퍼레이드, 걷기 행사, 마라톤 대회 등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해 대한민국의 대표 명품 걷기 코스로 만들 방침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20.4 X 3.9 cm



2015년 03월 11일 (수)  
지역

## 경기도 '평화누리길' 점검...국내 대표 걷기코스로 육성

[경인방송 - 고태현 기자 th0472@ifm.kr]

경기도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평화누리길 12개 코스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경기관광공사 등과 함께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을 합동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와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는 자전거 퍼레이드와 걷기 행사, 마라톤 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평화누리길을 국내 대표 명품 걷기코스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상징인 DMZ를 각종 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4 X 6.7 cm

## 道, 평화누리길 편의시설 등 점검

경기도는 올해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평화누리길'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평화누리길은 2010년 5월 비무장지대(DMZ) 주변 철책을 따라 김포 대명항부터 고양과 파주를 거쳐 연천 신탄리역까지 12개 코스, 191km에 조성된 최북단 트레킹 코스다.

오는 12일 가장 긴 코스인 연천 군남홍수조절지~신탄리역 23.9km에서 안내판·편의시설, 이용객 불편 사항, 노선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일부 코스는 걷기 행사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점검할 예정이다. 송주현기자

.....  
편집=황제현기자

5.7 X 8.7 cm

## 평화누리길 활성화

### 도·시·군등 합동점검·개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대표 걷기 코스인 평화누리길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도는 3월부터 시·군 및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평화누리길 12개 코스를 매월 2회(둘째, 넷째 목요일)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12일부터 연천지역 '통일 이음길(군남홍수조절지~신탄진역)' 구간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자전거 퍼레이드, 걷기 행사, 마라톤 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 대한민국의 대표 명품 걷기코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재준기자 bioc@kyeongin.com

4.9 X 12.1 cm

# 평화누리길 12곳, 명품 걷기코스 되나

## 道, 이달부터 합동점검

경기도가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분단과 평화의 상징인 DMZ(비무장지대) 일원 평화누리길 코스 점검에 나선다.

코스의 적정성과 대체노선, 이용객 불편 사항 등을 재점검해 평화누리길을 명품 걷기코스로 육성하기 위해서다.경기도는 이달부터 해당 시·군, 경기관광공사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평화누리길 12개 코스를 합동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평화누리길은 지난 2010년 5월 DMZ 주변 철책을 따라 김포 대명항부터 고양과 파주를 거쳐 연천 신탄리역까지 12개 코스, 191km에 조성된 최북단 트레킹 코스다.

도는 우선 12일 가장 긴 코스인 연천 통일이음길(12코스) 군남홍수조절지~신탄리역(23.9km) 구간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코스는 분단의 아픔을 넘어 통

일을 잇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안내판·편의시설 설치현황, 이용객 불편 사항, 노선 적정성 및 대체노선 발굴 등이다.

이어 4월은 5코스(고양 호수공원~출판도시)와 11코스(연천 송의전~군남홍수조절지), 5월은 2코스(김포 문수산성~애기봉)와 6코스(파주 출판도시~통일동산), 6월은 3코스(김포 애기봉~전류리포구)와 4코스(고양 행주산성~호수공원)을 점검한다.

나머지 코스 합동점검은 9~10월 진행된다.일부 코스는 걷기 행사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점검할 예정이다.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올해는 분단·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통해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상징인 DMZ를 알리고, 평화누리길을 국내 대표 명품 걷기코스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10.1 X 12.4 cm